

새 구심점 하승운 “흔들림 없이 ‘광주의 길’ 간다”

광주FC, 이정효 감독 이적 임박·선수 추가 이탈 등 어수선
올해 코리아컵 등 주축 활약...“똘똘 뭉쳐 내년엔 더 성장할 것”

“원팀으로 시작해 원팀으로 끝났다.”

지난 6일 코리아컵 결승이 끝난 뒤 광주FC의 하승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팀’을 강조하며 긴 시즌을 마무리하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하승운의 이야기대로 주축 선수들의 출부상과 박태준의 시즌 중반 입대 등 길고 험난한 시즌이었지만 광주는 ‘원팀’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K리그1 16위,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위대한 성과를 냈다.

팀워크로 만든 2025시즌, 광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다.

구단의 적극적인 구매에도 이정효 감독의 이적 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선수들의 추가 이탈도 있다. 코리아컵 결승을 위해 임대를 미뤘던 이강현과 변준수가 전력에서 빠지고 코리아컵 무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의 이적도 준비되고 있다.

‘원팀’으로 달려왔던 하승운은 새로운 시즌, 새로 구성될 광주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 출신인 하승운은 2019년 포항에서 프로 데뷔를 해 전남과 안양에 임대 돼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2022년 고향 유니폼을 입고 이정효 감독과의 동행을 시작했다.

공은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경기 전에 감독님께 ‘자신 있으니까 못하면 바로 교체 카드 준비하시라’고 말했다”라면서 웃은 하승운은 “체질이 큰 경기에 강하고 즐기는 편이다. 골이 들어갈 줄 알았다. 아쉬운 건 끝도 없다. 좋은 절과 냈어야 했는데 죄송스럽다”라고 시즌 마지막 경기를 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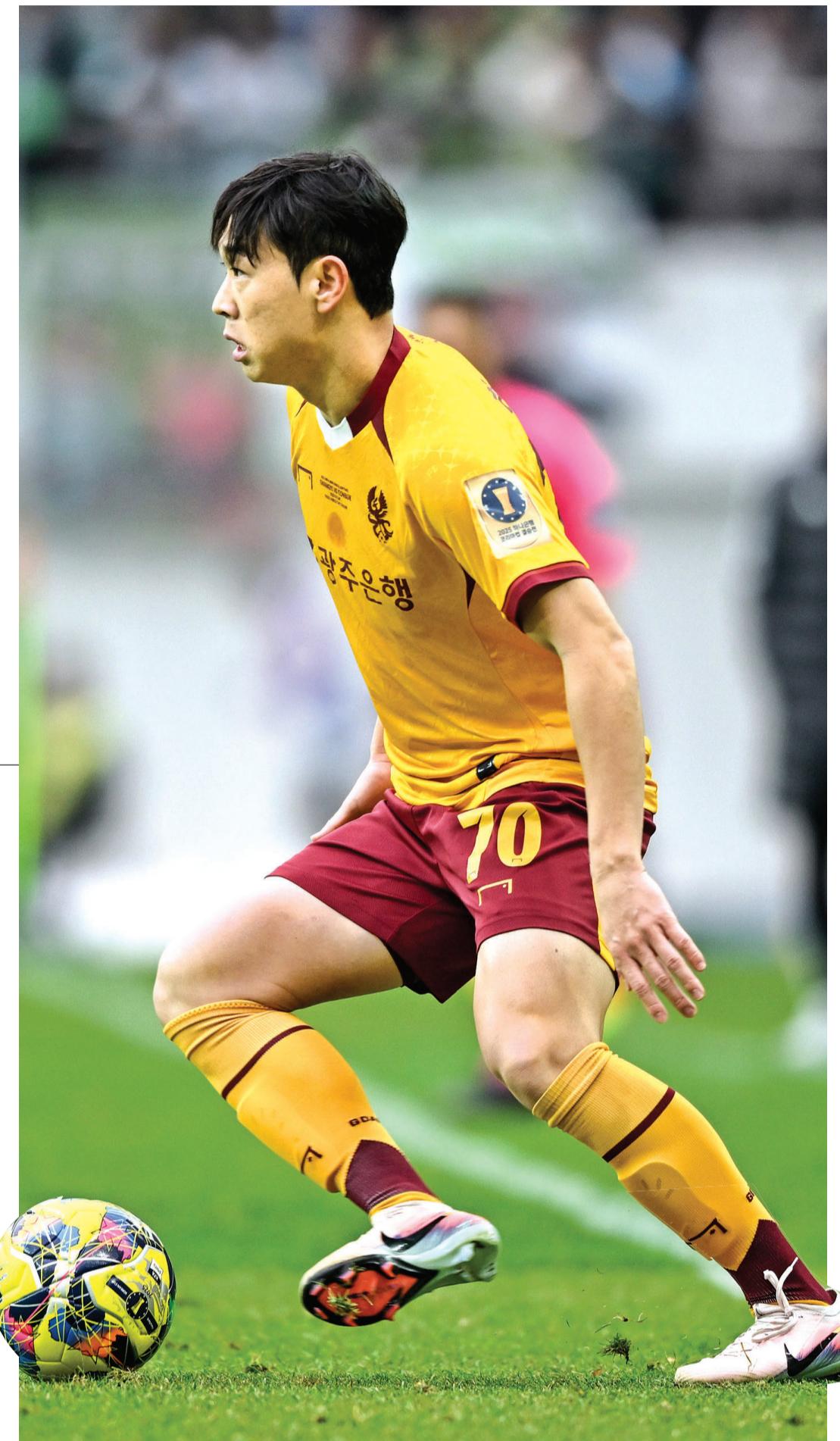
후회 없이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부상으로 오랜 시간 뛰지 못하기도 하는 등 시즌이 순탄하지만 않았다. 하승운에게는 성장의 시즌이 됐다.

하승운은 “올 시즌 좋은 경험을 했다. 늘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도 배운 게 많다. 그걸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해서 멘탈적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된 것 같다”며 “부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시즌이 짧았다.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속 시원하게 했다”고 말했다.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던 이들과의 작별이 기다리지만 하승운은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이팀으로 또 다른 질주를 펼칠 생각이다.

하승운은 “준우승이 아쉽지만 더 성장해서 팬들에 보답하겠다. 팬분들도 올 해 고생 많이 하셨다. 훈경기 때 많이 오시면 좋겠다”며 “남은 이들끼리 잘 뭉쳐서 잘 해보겠다. 내년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아컵 결승전을 통해 2025시즌을 마무리한 광주FC의 하승운이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 성장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황금듀오’ 임종훈-신유빈, 만리장성 격파

탁구 월드시리즈 왕중왕전 혼복
왕추친-쑨잉사조 3-0 꺾고 ‘금’
6전 전패 열세 뒤집고 값진 승리

작년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을 합작한 ‘황금 콤비’ 신유빈(대한항공)과 임종훈(한국거래소)이 올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를 종결하는 왕중왕전에서 만리장성을 허물고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신유빈은 13일 홍콩에서 열린 WTT 파이널스 홍콩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임종훈과 호흡을 맞춰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를 3-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WTT 시리즈 그랜드 스매시와 챔피언스, 컨텐더 성적을 기준으로 랭킹 포인트가 높은 선수들만 초청해 우승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이다.

남녀 단식에는 세계 정상급의 16명만 참가하고, 혼합복식에선 8개 조만 초청받았다.

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조별리그에서 3경기를 모두 3-0 승리로 장식하고 조 1위로 4강에 올라 이날 중국의 린스동-콰이만 조와 만났다.

린스동-콰이만 조는 올해 WTT 시리즈 최상위급인 그랜드스매시 3관왕(싱가포르·미국·유럽 스매시)을 달성하며 혼복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최강 복식조였다.

특히 올해 WTT 시리즈 3관왕(체나이·루블라나-자그레브)에 오른 임종훈-신유빈 조는 미국·유럽 스매시 결승에선 린스동-콰이만 조에 무릎을 꿇어 두 번 모두 준우승했다.



지난 13일 홍콩에서 열린 WTT 파이널스 홍콩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임종훈과 호흡을 맞춘 신유빈(오른쪽)이 공격을 하고 있다.

【WTT 인스타그램 캡처】

고 무릎 인대를 다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유빈은 혼합복식에서 투혼을 발휘했고, 마침내 왕추친-쑨잉사 조를 넘어서며 한국의 파이널스 출전 사상 첫 혼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달 30일 결승전 임종훈은 결혼 직전에 출전한 WTT 스타 컨텐더 무스카트에서 오준성(한국거래소)과 남자 복식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최고 무대인 파이널스에선 신유빈과 혼합복식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신혼여행까지 미뤘던 임종훈으로선 최고의 결혼 선물을 얻은 셈이다.

신유빈과 임종훈은 올해 WTT 마지막 대회에서 혼복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성과로 2025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중원 수비 강화

포천시민구단 수비수 강신명 영입...올 K리그3 ‘베스트 11’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2025 K리그3 ‘베스트 11’에 빛나는 포천시민구단 수비수 강신명(28)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영등포공고-전주대 출신의 강신명은 183cm·82kg의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센터백과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 지원이다.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그는 많은 활동량과 뛰어난 대인수비 능력으로 올 시즌 전남의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진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6위로 시즌을 마감한 전남은 올 시즌 39경기에서 63골을 넣으면서 ‘우승팀’ 인천유나이티드(66점)와 4위 서울이랜드(64점)에 이어 득점 3위에 올랐지만, 52골을 내주면서 최소실점 10위에 그쳤다.

2018년 U23 대표팀 출신인 강신명은 2020년 K



전남드래곤즈가 K리그3 베스트 11 수상자인 수비수 강신명은 포천시민구단에서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배준호 ‘코리안 더비’서 존재감

EFL 챔피언십 21R 스토크시티

엄지성 스완지시티 2-1 제압

배, 선제골에 도움까지 맹활약



축구 국가대표 배준호(스토크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이뤄진 ‘코리안 더비’에서 선제골을 도우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스토크시티는 13일(현지시간) 영국 스토크온트렌트의 벳365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완지시티와의 2023-2026 챔피언십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이날 경기는 배준호와 스완지시티 엄지성의 ‘코리안 더비’로 한국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배준호와 엄지성은 이날 경기에 각각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초반부터 그라운드에서 맞붙었다.

웃은 쪽은 배준호였다.

배준호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며 선제골 도움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칼턴 애슬레틱과의 17라운드에서

3-0 승리에 쪘기를 박는 골을 어시스트한 이후 나온 시즌 3호 도움이다.

전반 42분 배준호는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벤 피어슨을 향해 패스를 살짝

미워 보였고, 피어슨이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배준호는 5분 뒤엔 세코 다츠키의

/연합뉴스